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상화(대경대학교 호텔크루즈학부 조교수)*

< 목 차 >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2-1. 창업지원정책	5-1. 연구 결과 요약
2-2. 기업가정신	참고문헌
2-3. 비재무적성과	Abstract
III.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 요 약 >

최근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 지역에 있는 300개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264부에 대한 통계 분석을 SPSS22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창업지원 정책의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모두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가 정신 요인 중 혁신성만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융합적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키워드 : 창업지원정책, 기업가정신, 비재무적성과, 창업성과

• 논문투고일 : 2022-07-22. • 수정일 : 2022-08-26. • 게재확정일 : 2022-08-31.

* 제1저자, 대경대학교 호텔크루즈서비스학부 조교수, ksh6502@tk.ac.kr

I. 서 론

최근 COVID-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는 불경기 속에서 기업경영을 위한 외부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시대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극심한 경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주된 요인으로 파트너와의 협업과 정부의 지원정책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미국, 유럽, 중국과 같은 강대국도 심각한 경제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규모의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경쟁과 공존 속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창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경제에 있어 창업기업의 중요성은 경제 발전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침체 및 실업률의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최근 급속한 경제 발전, 국가 정치적 문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은 국내 뿐만아니라 전 세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이슈된 새로운 시대의 변화로써 첨단 정보통신기술, 혁신적 변화, 융합을 요소로 한다고 하였다. 이에 정부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속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1986년 ‘창업기업창업지원법 및 신기술사업 금융법’을 제정하면서 청년창업 및 기술 창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박희상, 2020). 정부는 창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창업 교육, 시설·공간, 컨설팅·멘토링, 각종 사업화 지원, 정부 자금지원, R&D 지원,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양성하고 있다. 창업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Schumpeter(1934)는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최초로 정의한 후 구체적 개념은 기회 포착, 가치 창출, 위험 감수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행동으로 전이하여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동기와 욕구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기업가정신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제이며, 관련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특정행동이나 목표달성 의도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Zampetakis · Dewett, 2009).

창업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창업성과와 관련된 요인을 변수로 많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술에 기반된 부문에만 치중하여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
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제품과 서비스로 실물화
함으로써 과학과 산업을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을 창업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하여 창업에 대한 중요성
을 부각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기술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정책과 다양한 법 제도를 마련하여 자금지원 조세지원, 기술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비재무적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지원정책

정부는 국가경쟁력 확보, 신성장동력 양성, 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형 먹거리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수많은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창업시장은 대표적인 실패의 시장
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창업시장의 높은 거래비용, 실패위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
하여 시장 매커니즘이 적용되기 어렵고, 이러한 시장실패에 따른 창업생태계의 손실을 막
기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 많은 예산 투입을 통하여 창업을 육성하고 있다(양영석, 2013).

창업지원제도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창업교육, 컨설팅, 사업화지원, 멘토링으로 분류하
였고, 2차적으로는 정책자금 운영 금융, 투자, R&D 연구자금 등으로 분류하였고, 3차적으
로는 창업공간, 판매 및 마케팅 인프라, 시설로 분류하였다(김창봉 · 이승현, 2017).

지효선(2019)은 창업지원정책을 창업을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에
서 창업교육, 운영자금, 제품의 마케팅 등 제품 및 서비스, 판로 개척에 대한 다양한 요소
를 일정기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전인오(2012)는 창업보육기업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에서 창업 자금지원, 창업 인력정책지원, 창업 마케팅지원이 창업성과
에 미치는 신뢰도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하였다. 창업을 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이나 회사
의 영리 추구 목적이며 부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을 통한 매출 상승은 일자리 창출
로 연계되며 사회적으로 고용증대와 실업률 감소를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가 된다. 창업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게 되고,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고 개발하며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원동력이 되고, 이러한 결과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창업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서비스이며 생산 경제단위라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새롭게 개시(Start-Up)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상화, 2022). Johnson(1990)에 따르면 창업자들에게 창업지원정책을 통하여 기술교육, 자금 대출, 훈련, 사후관리 등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박희상(2020)은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대부분은 저자본 창업자가 대다수로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창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성과, 고객성과, 내부성과, 학습 및 성장성과로 구분된 균형성과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충섭·이남주·김준호(2009)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노현철·현병환(2017)은 창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창업자금, 기업운영자금 뿐만아니라 창업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포함하며 특히 창업에 필요한 조세 감면, 규제 완화,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을 돕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에서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을 육성하며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고 기획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무분별한 창업지원금으로 인하여 창업의 연속성보다 실패사태가 많이 나타남에 따라, 창업지원정책과 더불어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사업화 지원, R&D 지원, 시설·인프라 지원, 교육멘토링·컨설팅 지원, 정책자금지원 등)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 자금, 마케팅 지원의 정책 효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기업가정신

현재 창업은 고등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고, 특히 전반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슈가 강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정규 교육과정 내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기 창업자 뿐만아니라 미래의 예비창업자 및 재취업, 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은 기업 활동의 주요 역량 및 요소로 크게 작용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고용확대, 생산성 증대, 혁신역량 강화 등에서 기업의 성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를 확산시킨다고 하였다(Baldwin, 1998). 또한 기업가정신은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기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준다는 측면에서도 기업의 기술개발 및 미래 적응 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기업 활동은 기업가정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고경선·남정민(2020)은 개인의 기업가정신은 자기평가를 통해 얻은 도전정신, 창의혁신, 리더십, 가치창출의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기업가정신은 미래에 대한 예측, 도전과 혁신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써 나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경험을 통해 참된 가치를 창출하려는 혁신적인 마인드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배해경·이우진 2020). 기업가정신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가진 기업들은 진취적인 단순히 경쟁자들을 공격하며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신제품개발 및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단기적으로는 재무적 이익,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에 큰 효과를 가져온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된 관련 국내연구들도 기업가정신과 창업성과 간의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최명길·심재후·김명기, 2014). Zahra(1991)는 실증분석을 통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입증하였고, Matsuno et al(2002)는 기업가적 특성과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기업가적 특성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시장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 성과 중에서 시장점유율과 판매 비중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하였다. 강병오(2011)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측정된 기업가정신은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로 측정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양한 학자들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언급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적인 전략과 방법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1〉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정의
Miller(1983)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자원을 재결합·재분배하는 활동
Schumpeter(2000)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가 환경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행동양식
Krause(2012)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크기, 형태, 업태 등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기업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

조준희·김찬중(2015)	기업가정신은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신규 조직을 만드는 의도적인 행위
김창봉·이승현(2017)	기업가정신은 끊임없는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행동

2.3 비재무적성과

경영성과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 기업의 평가 기준은 다양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하지만 전통적인 기업의 성과 측정 수단으로는 재무적 지표를 우선하여 평가하고 있다. 재무적 지표는 순이익,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일정한 수치를 제공하지만, 사업의 과정과 인식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기업 활동의 측정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졌고 성과지표 관리방법이 등장하였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재무적 성과지표와 함께 비재무적 성과지표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비재무적성과는 재무적 성과의 원천이 되고 기업의 필수적인 성공요소를 탐색하여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비재무적 경영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비재무적성과는 기업의 활동이 이익의 극대화 외에 다른 운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결과적 변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Melnyk · Calantone, 2003). 또한 기업의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측정지표의 형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서 비재무적 성과측정지표는 미래의 재무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Abetti(1997)는 벤처기업의 성공을 객관적 성공과 주관적 성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성공단계는 1,2,3단계 이상과 연속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재무적 성공에 대비하여 종업원 수의 증가 및 사회적 기여와 기업의 교육 과정 등 비재무적 성공을 나타낼 수 있고, 성공이 계획 대비 실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족과 부족 차원에서 표현된다고 주장하였다. 한동협(2013)은 제조업 기업과 비제조업 기업 모두 고객 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품질과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대한 성과가 필요하며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 측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비재무적성과 변수는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 변수를 활용하였다.

비재무적성과는 조직 구성원이 기업의 수익률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강지호, 서미옥, 윤성욱(2022)은 종사원의 능력, 자질, 노력, 보상시스템 등의 효과성, 고객만족 등을 비재무적성과의 측정도구로 포함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시장점유율, 기존 고객 유지, 고객만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족도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조한지, 2019).

이윤원·이충섭·조상구(2010)은 성과관리시스템의 속성 중 비재무적 성과지표의 사용
 정도, 중요성 및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비재무적 성과지표의 활용성과 비재무적 성
 과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변수는 모두 경영성과에 통합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기업 성과달성을 위해 다양성과 복잡성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성과지표 달성 확인이
 어려우며,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성 및 기업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재무
 적 성과지표를 확보하기 복잡하다. 이에, 비재무적 성과지표 활용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늘
 어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비재무적성과는 조직몰입, 직무만족도 등과 같이 종업원들의 주
 관적 인식에 의해 측정되는 성과라고 하였다. 조직의 비재무적성과는 직원 생산성, 제품
 출시 시간, 고객불만 처리시간, 고객만족도, 지식활용도, 브랜드 이미지, 직무만족도, 팀위
 크로 구분 할 수 있다(최문기·손성진 2018).

최근 비재무적 성과지표(ESG)를 통한 기업의 수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고 쓰는지를 평가하는 비재무적 성과지표가 떠오르고 있으며, 환경(Environmental), 사
 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활동이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표 2〉 비재무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정의
Clarkson·Richardson Vasvari(2008)	기업이 인력과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의 목표를 기반으로 제품, 서비 스 및 기업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조직 통제 수준과 경영시스템이 반 영된 결과물
김문준·장석인(2015)	종사원이 기업의 수익률과 경영목표 달성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상태
최동빈(2015)	재무적성과를 제외한 성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자 경영상 성과
황보운·배근석(2017)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선호도, 이익률 상승 정도, 성장잠재력, 시장 점유율 향상, 매출액, 기업 인지도 증가 요인
진철웅·양길승(2019)	기업이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전반적인 고객 만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운영 결과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정부가 주도하는 창업지원정책, 기업과정신과 관련하여 창업관련 이론들을 정리하고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정신 및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와 같은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창업자들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창업 관련 지원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해당되는 비재무적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볼 수 있다.

최종열(2015)은 정부의 벤처기업혁신 지원제도가 창업성과 및 창업가정신, 기술혁신성 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하였으며, Blanchflower(2004)의 연구에서 는 정부의 R&D 자금지원이 기업가정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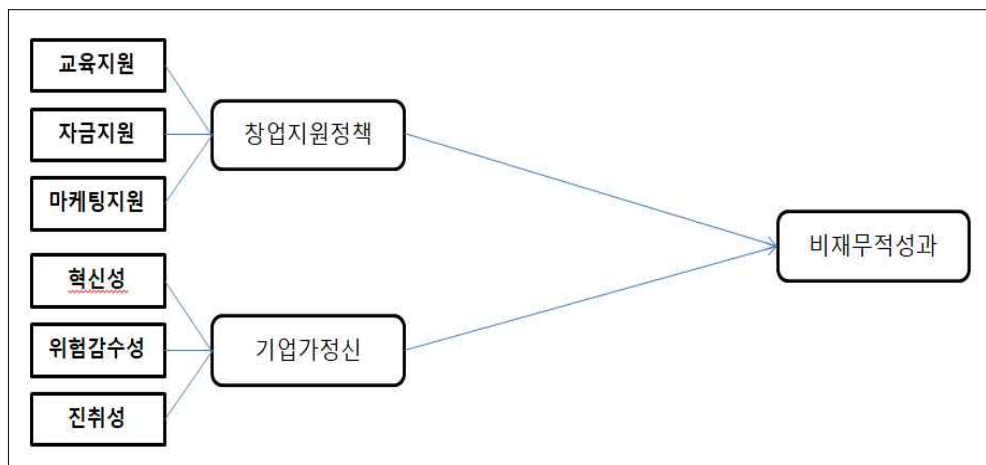
Clark et all(1984)와 이와이(2015)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교육이 창업 가정신을 활성화 시킨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을 촉진시킨다는 연구를 볼 수 있다. 창업가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서 최근 창업지원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Shumpeter(1973)는 기업가정신 을 환경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행동 양식이라고 정의하였고, Drucker(1998)는 변화를 건강한 것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자신을 채우라고 하면서 생존이란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역설하였다.

Timmons(1994)는 기업가정신을 기회라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포괄적인 접근방식과 균형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추론, 사고,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기업가정신의 개념 은 Maslow(1946)의 5단계 욕구이론(Needs Hierachy)과 McClelland(1961)의 성취동기이론 상충되어 설명되며 5단계 욕구이론에 따라, 욕구 계층 최고 단계인 자아실현욕구는 인간 이 추구하는 가치를 개인의 존속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나 인관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비교 가치의 단계를 넘어 자기 자신의 가치와 보람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르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업가의 진취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적, 혁신적, 위험감수적 사고방식과 그에 따른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Miller(1983)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3가지를 제시하였으며, Lumpkin & Dess(1996)은 자율성과 경쟁적 공격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곤·양동우(2016)는 도전정신, 업무의 열정, 문제해결능력, 상황극복능력, 위험감수성, 재무적 희생, 신규 아이디어의 활용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의 새로운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김종관(1994)은 경영조직에서의 기업가정신과 그 영향요인 및 성과의 관계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은 조직의 성과에 대한 매개변수로서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재무적 척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적 지위, 제품 및 마케팅의 혁신성, 종업원의 사기와 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가설 1 : 창업지원정책의 교육지원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창업지원정책의 자금지원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창업지원정책의 마케팅지원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집단비교

본 연구의 실증연구를 위해 설문을 통한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대구 내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기관의 지원을 3년 이내 받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4주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최종 수집된 표본은 264명이였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58%, 여자가 30%이며, 연령은 20대가 20%, 30대가 32%, 40대가 37%, 50대 이상이 10% 비율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10%, 대졸이상이 63%, 대학원 이상이 16%로 나타났다. 또한 주력업종은 제조업 18%, 유통업 16%, 외식업관련 업종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특성	구분	N	%
연령	20대	53	20.1	주력업종 전체응답수	유통업	42	15.9
	30대	86	32.6		제조업	48	18.1
	40대	98	37.1		의료기업	21	7.9
	50대 이상	27	10.2		경영 및 컨설팅	14	5.3
성별	남자	154	58.3		외식업 관련 업종	29	10.9
	여자	81	30.7		건설,전기,장비	17	6.4
	무응답	29	11.0		전자부품, 컴퓨터	21	7.9
학력	고졸이하	28	10.6		IT	11	4.1
	대졸	167	63.3		기타	26	9.8
	대학원이상	42	15.9		무응답	35	13.2
회사설립 후 경과년수	1년미만	54	20.5	정부 지원비중	30%이하	147	55.7
	3년미만	89	33.7		30%~50%	42	15.9
	5년미만	62	23.5		50%~70%	25	9.4
	5년이상	24	9.1		70%이상	5	1.9
	무응답	35	13.3		무응답	45	17.0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는 <표3>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설문 조사자들은 주로 기업을 설립한 후 5년 미만인 206개(전체 77.7%)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성실한 응답을 한 264개 기업의 데이터를 반영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각 기업 직원 1명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의 중복을 하지 않았다. 가설검증에 앞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SPSS 22.0을 이용하여 Cronbach's Alpha test를 시행하였다. 요인의 조작적 정의는 <표4>에서 나타냈으며, 조작적 정의부분에서 창업지원정책은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 및 기관의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창업가들에게 제공되는 제도적 기회라고 정의하였다(이정란, 2016; 지효선, 2019; 최관섭, 2019). 본 연구에서는 박남규(2016), 이정란(2016), 최관섭(2019)의 선행연구에 따라 구성 세부 항목을 3가지로 정하였으며 영향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들의 선행연구에서도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테크노파크 지원기업, 멘토링 센터의 지원기업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집중타당성이 입증된 척도들에 대해 법칙타당성(nomological validity)과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고자 전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 관계 분석 결과는 <표5>에 제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법칙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방향과 상관계수의 방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4> 요인의 조작적 정의

요인	조작적 정의	선행 연구
교육지원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강좌, 워크샵, 학위 등 교육적 내용	Ronstadt(1985), 이정란(2016), 지효선(2019), 최관섭(2019)
자금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투자 및 융자 자금 지원을 통하여, 부·지자체·기관·금융권 등을 통해 조성된 창업자금을 예비창업자나 기창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박남규(2016), 지효선(2019), 최관섭(2019)
마케팅지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자에게 창업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마케팅 관련 지원 서비스	김용집(2014), 지효선(2019), 최관섭(2019)
혁신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가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서리빈(2010)
위험감수성	위험을 수용하고 개인의 특성이나 불확실한 결과를 예상하고도 과감히 도전하려는 의지 정도	Sexton & Bownan, 1986
진취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긍정적인 사고성향	Becherer & Maurer, 1999

비재무적 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혁신 등 조직 구성원들의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되는 성과 및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선호도, 이익률 향상, 성장 잠재력, 시장 점유율 향상 매출액 증가 정도	장원섭(2008), 황보윤. 배근석(2017)
------------	--	------------------------------

<표 5>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2	3	4	5	6	7	cronbach's
혁신성2	.889	.143	.158	.124	.001	.029	.133	.906
혁신성3	.881	.141	.163	.119	-.040	.019	.109	
혁신성1	.834	.160	.149	.230	-.021	.011	.126	
교육1	.139	.885	.161	.145	.038	.002	.151	.902
교육2	.158	.883	.150	.199	.036	.018	.143	
교육3	.170	.778	.091	.267	.078	-.047	.208	
마케팅1	.109	.152	.871	.088	-.001	.033	.091	.816
마케팅3	.159	.196	.866	.114	.054	-.040	.118	
마케팅2	.173	.027	.808	.149	-.003	-.066	.095	
자금2	.202	.174	.154	.823	.057	.002	.186	.816
자금1	.103	.171	.135	.789	.054	.031	.190	
자금3	.161	.198	.079	.757	-.044	-.050	.106	
위험감수성2	.034	.020	-.043	.067	.899	.049	.022	.786
위험감수성1	.074	.005	.005	.056	.897	-.012	.023	
위험감수성3	-.201	.109	.095	-.082	.686	-.218	.080	
진취성2	.050	.010	-.011	-.064	-.048	.852	.099	.726
진취성3	.005	-.123	-.075	.048	-.024	.771	.016	
진취성1	-.008	.095	.029	-.002	-.051	.769	-.010	
비재1	.161	.157	.040	.058	.027	.002	.787	.754
비재2	.237	.119	.133	.192	.053	.012	.757	
비재3	-.056	.192	.172	.303	.058	.134	.716	
아이겐 값	6.040	2.343	1.957	1.618	1.555	1.280	1.100	
분산(%)	28.764	11.159	9.321	7.705	7.404	6.094	5.237	
총 분산(%)	28.764	39.923	49.244	56.949	64.353	70.447	75.683	

타당도 분석을 위해 SPSS v.22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요인분석을 위해 주 성분 분석에 의한 varimax 요인회전 방법이 사용되었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설계와 같이 7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아이겐 값은 모두 기본 값인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에 부하된 항목의 값이 모두 .716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상관관계결과

요인	1	2	3	4	5	6	7
교육지원	1						
자금지원	.561**	1					
마케팅지원	.510**	.455**	1				
혁신성	.469**	.467**	.420**	1			
진취성	.334**	.298**	.384**	.267**	1		
위험감수성	.418**	.358**	.329**	.301**	.297**	1	
비재무성과	.438**	.461**	.424**	.336**	.329**	.307**	1

〈표6〉에 정리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 지원 및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비재무적성과 전반에 걸쳐 정(+)의 상관성을 보여 준다. 또한 자금지원은 높은 정(+)의 상관성($r=.561$)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결과와 개별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가설은 대부분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회귀분석결과

path		표준화 경로계 수	표준오 차	β	t	유의 확률	허용 오차	VIF
H1	교육지원->비재무적성과	.155	.066	.174	2.344	.020	.613	1.632
H2	자금지원->비재무적성과	.253	.070	.260	3.618	.000	.653	1.531
H3	마케팅지원->비재무적성과	.160	.047	.235	3.372	.001	.696	1.437
H4	혁신성->비재무적성과	.274	.055	.318	5.008	.000	.993	1.007
H5	진취성->비재무적성과	.087	.060	.091	1.441	.151	.993	1.007
H6	위험감수성->비재무적성과	.104	.062	.106	1.674	.096	.999	1.001
창업지원정책 : R= .547, R제곱=.300, 조정된 R제곱=.290, Durbin-watson=1.841, F=29.670								
기업가 정신 : R= .352, R제곱=.124, 조정된 R제곱=.112, Durbin-watson=1.889, F=10.291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교육지원(가설1, $\beta=0.174$, $p<0.20$), 자금지원(가설2, $\beta=0.260$, $p<0.00$), 마케팅지원(가설3, $\beta=0.235$, $p<0.01$)이 비재무적성과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혁신성(가설4, $\beta=0.318$, $p<0.00$)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진취성(가설5, $\beta=0.091$, $p<0.151$), 위험감수성(가설6, $\beta=0.106$, $p<0.096$)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이정란(2016)의 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로 나타났다. 안규선(2010)의 연구결과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 사회적 책임성, 진취성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위험감수성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비재무적성과에서는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beta=0.318$)과 정부창업지원 부분 자금지원($\beta=0.260$)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5.1 연구 결과 요약

최근 정부는 혁신 창업 국가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적극적인 창업활성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4년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하였다. 하지만 창업기업들의 폐업률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창업생태계의 변화과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융합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및 비대면 전환 등에 따라 서비스 플랫폼 분야도 창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창업지원정책, 창업교육, 사업화지원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우수한 창업자를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및 지원정책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정책 및 교육기관에서 주도하는 기업과 정신이 창업성과의 핵심요인 중 하나인 비재무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창업지원정책의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은 비재무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의 창업지원 정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내는 기반이 되며, 기업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경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활동을 수행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창업지원정책을 수혜
받은 기업일수록 비재무적성과가 높게 나온다고 하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김태환 2017, 원상필 2019). 특히 정부의 자금지원은 현실적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적 의지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정부는 예비창업
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지원 창고의 문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
부와 교육기관은 협력하여 교육기관에 전문 컨설턴트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기관은 예비창업자가 정한 목표대로 창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 9〉 연구모형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		결과
가설1	창업지원정책의 교육지원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가설2	창업지원정책의 자금지원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가설3	창업지원정책의 마케팅지원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가설4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가설5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안됨
가설6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안됨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정책의 주요변수인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세가지 모
두 종속변수인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기업가정신 변수에서는 혁신
성만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의 교육과정을 통한 지식 함양,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 활성화 및 기반확보, 마
케팅지원을 통해 마케팅 활용 능력, 사업고도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비재무적성과에 영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업가정신 변수 중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을 활용
하여 가치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성만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변수인 위험을 수용하고 불확실한 결과를 예상하고 도전하려는 의지를 갖춘 위험감수성
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긍정적인 사고 성향인 진취성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단계를 세분화하고 거기에 맞는 정부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여 올바른 창
업교육과정 제공을 통해서 창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국내 창업기업 약 60%
가 창업 후 3년 안에 폐업한다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업자들을 대상을 창업지원정책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창업지원 정책의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들이 새로운 창업 기회를 인식하고 발전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동일 방법 편의에 한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측정도구와 응답원에 의해 측정(박원우 외, 2007)함으로써 발생한다. 동일방법편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설문 조사 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각각 다른 응답자로부터 측정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이 방법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이용한 예비창업자들이 지속적인 창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려면 창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지속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창업 고도화를 위한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을 기반으로 새롭게 변화는 산업의 트렌드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시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르게 격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창업가 및 창업기업 양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지원정책, 창업기업의 환경과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오늘날 소비 의식의 다양화, 급속 변화에 따른 사고 전환과 기술 혁신 등 빠르게 변화는 경영환경에 발맞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고 가설을 검증하였으나, 추후 학문적이고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다른 창업 변수들을 활용하여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을 통하여 심층적인 연구의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개입이 창업기업의 자체 노력을 떨어뜨리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연구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곽규태 · 천영준 · 최세경, 2018).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변수 외에도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곽규태·천영준·최세경(2018). 정부 정책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의 수단, 대상 그리고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3(2), 83-103.
- 강지호·서미옥·윤성욱(2022).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신뢰, 비재무적 경영성과 및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4), 398-408.
- 고경선·남정민(2020). 개인수준의 기업가정신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 수준의 기업가정신 조절효과 검증.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4(1), 51-70.
- 공혜원(2018).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 성별 및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3(6), 129-141.
- 김문준·장석인(2015). 경영진의 컨설턴트 역량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5(1), 195-210.
- 김상화(2022). 국내·외 창업 트렌드 분석을 통한 대구광역시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3(4), 219-238.
- 김정곤·양동우(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공모전 참여 동기를 매개변수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477-487.
- 김종관(1994). *경영조직에서의 기업가정신과 그 영향요인 및 성과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종명·이서영(2020). 창업교육, 정부지원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16(3), 429-448.
- 김창봉·이승현(2017). 창업지원제도가 1인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2(2), 41-54.
- 김태환(2017). *청년 창업지원 정책분석을 통한 창업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철·현병환(2017).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31(3), 35-66.
- 박남규(2014).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박원우·김미숙·정상명·허규만(2007).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원인과 해결방안, **인사조직연구**, 15: 89-133.
- 박희상(2020). *창업기업의 사회적 자본과 정부창업 지원이 흡수역량을 통해 경영성과에*

-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 배혜경 · 이우진(2022).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6, 43-67.
- 변지유 · 이장희(2020). 기업가정신역량기반 교육 연구: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Entrepreneurship Competence 도출. **벤처창업연구**, 15(6), 189-207.
- 안규선(2010). *경영환경과 기업가정신이 기업경영성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 안승권(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양영석(2013). BSC 기반의 기술창업교육 성과평가모형 개발 연구: 창업대학원 성과평가지표 분석과 개선방안도출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8(2), 129-139.
- 유봉호(2013).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6(10), 2669-2690.
- 이윤원 · 이충섭 · 조상구(2010). 경영혁신기법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영향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분석.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0(4), 187-204.
- 이정란(2016).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 이충섭 · 이남주 · 김준호(2009). 소상공인의 시장 환경특성과 지원서비스가 균형성가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27(1), 261-284.
- 임승준(2017). *창업지원사업이 청년창업성가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윤성욱 · 서근하(2003). 한국의 소상공인 창업문화에 관한 연구: 창업자 개인적 특성과 마케팅 인식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6.1, 99-118.
- 원상필(2019). *4차산업혁명인식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효선(2019). *예비창업자를 위한정책이 기회 인식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창업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희 · 마운주. (2011). 기업가정신이 시장지향성 및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5), 2777-2802.
- 전봉준(2012).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영향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인오(2012).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사업화에 따른 기술역량이 지원과 경영성과단계에

-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9), 325-339.
- 조준희 · 김찬중(2015).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과 창업 참여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18(4), 53-75.
- 조한지(2019). 창업멘토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3, 42-72.
- 진철웅 · 양길승(2019).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3(8), 33-46.
- 중소벤처기업부(2021). **정부 창업예산 16년 대비 20년 2배 이상 급성장, 창업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 개선 뚜렷**. 보도자료.
- 최관섭(2019).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지원정책 유형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 최동빈(2015). **외식업 매장 근무자의 일터학습이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명길 · 심재후 · 김명기(2012).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27(3), 1-18.
- 최문기 · 손성진(2018). 전략적 성과측정시스템의 특성이 조직태도, 조직시민행동과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회계연구**, 80, 79-108.
- 최종열(2015). 기업가정신, 혁신역량 및 외부협력이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219-231.
- 한동협(2013).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과 비재무적성과에 관한 연구: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의 ISO 인증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14(5), 287-304.
- 황보운 · 배근석(2017). 사내기업가정신, 인적자원혁신성이 기업혁신활동과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12(4), 1-14.

(2) 국외 문헌

- Abetti, P. A.(1997). Convergent and divergent technological and market strategies for global lead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14(6-8), 635-657.
- Baldwin, J. R., & Gorecki, P.(1998). The dynamics of industrial competition: A North American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nchflower, D. G.(2004). Self-employment: More may not be better.
- Cartwright, S., & Cooper, C. L.(1989). Predicting success in joint venture organisations in

-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general management*, 15(1), 39-52.
- Clarkson, P. M., Li, Y., Richardson, G. D., & Vasvari, F. P.(2008) Revisiting the relations between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disclosure: An empirical analysi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33(4/5), p. 303-327.
- Cooper, A.C.(1986). Entrepreneurship and Hight Technology.In D.L Sexton, and R.W. Smilor(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 : Ballinger, 155-168
- Drucker, P. F.(1998). The discipline of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149-157.
- Johnson, D. W., & Johnson, R. T.(1990). Cooperative learning and achievement.
- Kaplan, R., & Norton, D.(1982). The Balanced scorecard-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74(1), 75-85.
- Matsuno, K., Johm, T. M. & Ozsorner, A.(2002),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proclivity and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66(3), 18-32.
- Melnyk, S. A., Sroufe, R. P., & Calantone, R.(2003). Assessing the impac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on corporate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21(3), 329-351.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Schachter, H. L.(2010). Objective and subjective performance measures: a note terminology. *Administration & Society*, 42(5), p. 550-567.
- Schumpeter, J. A.(2000). Entrepreneurship as innov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
-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 McGraw Hill, Illinois, Fourth Edition.
- Zahra, S. A.(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4), 259-285
- Zampetakis, L. A. & K. Kafetsios & N. Bouranta & T. Dewett& V. S. Moustakis.(2009).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Int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Research*, Vol. 15 No. 6, pp.595-618, 2009.

<ABSTRACT>

Effect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Non-Financial Performance*

Sang-Hwa Kim*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e are experiencing a rapidly changing world through the convergence of cutting-edge technolog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role of start-up support policie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non-financial performance of start-up companie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300 start-up companies in Daegu city, and statistical analysis of 264 of the recovered questionnaires was conducted using SPSS 22.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education support, financial support, and marketing support of the start-up support policy all had a positive effe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only innovation among entrepreneurship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ducted a convergence study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the non-financial performance of a company and drawing implications.

Keywords : Startup support policy, entrepreneurship, non-financial performance, startup performance

* First Author, Faculty of Tourism & Cruise Service, Daekye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ksh6502@tk.ac.kr